

# 현악기 매력에 흠뻑...비바 첼로!



최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비바첼로소사이어티가 창단연주회를 펼쳤다. 사진은 지난달 연주회 리허설을 진행하는 장면. <비바첼로소사이어티 제공>

## ‘비바첼로 소사이어티’ 창단 연주회 성료...단원, 연령·직업군 다양 원곡과 다른 구성으로 음악 실험...첼로 기반 타악기와 협연 환상적

“더 비바첼로 소사이어티”는 더블베이스, 비올라,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의 앞 자리를 본따 만든 조어입니다. ‘비바(Viva)’가 포르투갈어로 ‘격려, 만세를 부를 때도 하니, 한편으로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준 뒤 뜨겁게 격려받고 싶은 중의적 의미를 투영했죠”

더 비바첼로 소사이어티(The VivaCello Society·비바첼로) 소속 첼리스트 오유민은 팀명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풀어냈다. 이들은 최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창단연주회를 펼쳤다.

비바첼로는 광주대 대학원에서 관현악지휘 박사 과정을 마친 오승석(첼리스트), 전남대 음악학과 및 음악교육과(석사)를 졸업한 유순아를 비롯해 윤소현, 이아미, 안신애, 박찬 등 지역 현악기 파트 인재들이 다수 소속돼 있다. 겸임교수부터 대학 강사, 음대 재학생 및 졸업생까지 연령도 소속도 다양한 편이다. 여기에 손대홍(상무초2), 나우현(살레시오초6) 등 주니어 단원들도 활동 중이다.

학생 뿐만 아니라 천안성정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 중인 첼리스트 임효영 등도 멤버로 있다. 오승석(단장)과 유순아, 윤소현 세 명 예술가가 팀의 중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악기가 주를 이루는 앙상블은 그 장단점이 명

확하기에 레퍼토리 구성이나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했다. 조율이나 연주, 관리 등 그 모든 측면에 있어 현악기는 ‘민감’할 뿐만 아니라 타악·관악 파트처럼 악기 단독으로 큰 음향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 씨는 “현을 치는 스트로크 주법, 손가락으로 튕겨 연주하는 피치카토를 비롯해 현을 두드리는 타현, 악기의 몸통을 두드리는 기법 등 타악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법들을 활용하는 편이다”며 “‘현악 앙상블’ 이기에 음향이 제한되는 면이 있지만 다수의 현악기를 편성해 음량을 보완할 수 있고, 현악 앙상블만의 고유한 매력이 뚜렷하기에 단점이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안정적이지만 실험적인 작품들로 관객들을 만나려 한다. 대학원생과 학생 4명이 첼로 한 대를 가지고 라벨의 ‘볼레로’를 연주하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다. 3개의 색소폰과 작은 북, 비올라, 첼로로 편성되는 원곡과 다른 구성을 추구한 데서 이들이 추구하는 실험 정신이 가늠됐다.

4인 1악기 협주는 사정상 무산이 되었지만 ‘볼레로’ 자체가 C장조로 연주되는 쾌활한 주제 속에 피치카토로 독특한 리듬을 새기는 특징이 있는 까닭에, 현악기 한 대에 네 명이 달라붙는 계획이 허

황되게 들리진 않았다.

한편 창단 연주회는 목포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다희가 포퍼의 대표작 ‘헝가리 안 랍소디’로 막을 열었다. 유준형(운암중2)은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를, 오유민은 파가니니 ‘로시니 주제에 의한 모세 판타지’를 연주했다.

카발레프스키의 ‘첼로 협주곡 1번’은 나우현이,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b단조 Op.104’는 장승원의 선율에 실렸다.

2부는 송하현의 바흐 곡 ‘첼로 모음곡 2번 D단조 BWV1008’과 바이올리니스트 손예슬(치평중2)과 나우현 협연의 ‘트리오-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으로 장식했다. 스키르초프의 소스타코비치 작품 ‘첼로 소나타 2nd mov’는 김은설 솔로, ‘첼로 협주곡 1번’은 박찬 솔로로 만날 수 있었다. 첼로의 중후한 음색을 기반으로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하는 협연 레퍼토리들이 이목을 끌었다.

이 밖에 다채로운 앙상블 무대도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손대홍은 ‘나비야’를 연주했으며 영화 ‘미션 임파서블’ OST(테마곡) 등 익숙한 곡들이 레퍼토리에 많았다.

비바첼로는 “이제 막 시작하는 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공연인 ‘창단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감회가 깊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광주 전남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악 앙상블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올해 광주 버스킹 월드컵 기대되네

국내외 58개국 781팀 예선 경쟁률 24대 1...31일 본선 32팀 공개

에스토니아, 영국, 짐바브웨 등 국내·외 총 58개국에서 지원. 781팀 총 2143명이 참가신청. 예선 대비 예선 경쟁률 2배 상승.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경연 참가팀 모집 결과를 최근 밝혔다. 국내·외 총 58개국에서 781팀(총 2143명)이 지원하는 등, 아티스트들의 관심이 이어져 본선 경연의 수준이 기대된다.

올해 예선 경쟁률은 지난해 12대 1에서 두 배 상승했으며 튀르키예, 쿠바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음악성과 개성을 지닌 뮤지션이 신청했다. 참가국 수 또한 지난해보다 3개국이 증가했다.

본선에는 총 32팀이 출전하며 진출팀 명단은 오는 31일 버스킹 월드컵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들은 10월 5-18 민주광장 일원 3개 무대에서 라이브 버스킹 경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1억 원이

며 1위 ‘골든버스킹 상’에는 상금 5000만 원 수여) 광주 동구와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국제 버스킹 음악축제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오는 10월 2일-6일 펼쳐지는 ‘제21회 광주 추어의 충장축제’와 같은 기간 열린다. 올해는 버스킹뿐만 아니라 국제음악산업 컨퍼런스, 아시아 쇼케이스 등 음악 이벤트도 마련된다.

재단 문창현 대표이사는 “유명 밴드를 비롯해 거리 음악가 등 ‘버스킹 월드컵’의 취지에 맞는 아티스트 다수가 이번 경연에 지원했다”며 “뮤지션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제 69회 호남예술제 입상자-피아노

<p>&lt;심사위원&gt; 구재향 (호남신학대 교수) 박규연 (군산대 교수) 선수정 (경상대 교수) 신수경 (전남대 교수) 조성경 (전남과학대 교수)</p> <p>◇ 피아노 고등부 1.2학년 ▲ 금상 15 장소율 (대성여자고1) 20 이찬희 (국제고2) 29 박가인 (전남예술고2) ▲ 은상 1 박수민 (전남여자고1) 5 김영은 (동신여자고1) 7 함조세핀 (광주예술고2) 12 정민욱 (첨단고2) 24 전평강 (전남예술고1) 25 정다솜 (2008년생) 38 김재연 (전남예술고2) 39 임하연 (2007년생) 41 박수현 (광주예술고1) ▲ 동상 3 김지민 (국제고2) 8 안나현 (전남예술고2) 26 위어진 (여수여자고2) 30 차현승 (전주예술고2) 40 고수민 (군산중앙여자고2) 42 이예린 (전남예술고2)</p> <p>◇ 피아노 고등부 3학년 ▲ 금상 6 황지연 (광주예술고3) ▲ 은상 1 김태현 (문성고3) 2 문성현 (광주예술고3) 4 홍지원 (광주예술고3) 7 안진 (살레시오여자고3)</p>	<p>◇ 피아노 초등부 5,6학년 ▲ 최고상 40 양민준 (전주인봉초6) ▲ 금상 33 김다인 (태봉초6) 96 이솔하 (큰별초5) 123 김보민 (목포항도초6) 134 변하영 (만호초6) 139 이서연 (광주교대광주부설초5) 148 박인하 (산정초6) 152 전현경 (전주화산초5) ▲ 은상 4 채율아 (전주교대군산부설초5) 10 전하정 (목포부주초5) 16 윤태원 (은빛초6) 19 윤소은 (광주남초5) 24 김동하 (응우초5) 28 박별 (만호초5) 29 이상우 (응우초6) 34 소윤영 (만호초5) 35 장에서 (하백초6) 38 손훈진 (광주동운초6) 39 김지현 (목포부주초6) 48 최지혁 (일곡초5) 58 백승현 (조봉초5) 65 박주성 (태봉초5) 70 이태현 (선운초5) 74 손지인 (치평초5) 77 오시현 (선운초6) 82 임현우 (고실초5) 87 노다라 (대반초6) 89 정소진 (유안초6) 97 박정은 (은빛초5) 100 김수아 (순천울산초5) 102 김재윤 (광주방림초6) 105 최지효 (남평초5) 115 송단오 (광주교대광주부설초6) 116 정다윗 (예솔초5)</p>	<p>124 이다원 (만호초5) 129 윤하린 (만호초6) 131 이윤서 (용봉초6) 138 김재원 (문산초6) 144 신지후 (산정초5) 151 장나은 (월광기독교고5) 154 문서정 (산정초6) 156 황지유 (월광기독교고5) 157 천유라 (연제초6) ▲ 동상 1 최선우 (연제초6) 18 이지연 (남평초6) 20 이도현 (응우초5) 31 김가현 (하백초6) 32 정율아 (수문초6) 43 이지성 (동곡초6) 55 김다인 (순천조례초5) 61 문준복 (광주제석초5) 63 김예린 (대반초5) 67 박하현 (광주송원초5) 69 문시후 (영천초6) 72 최단우 (서광초5) 73 김서우 (영천초6) 76 안시연 (남평초6) 79 박혜림 (광양마동초6) 81 박서은 (목련초6) 90 안하은 (일동초6) 91 이승우 (신장초6) 99 이강산 (신장초6) 101 김시훈 (목포항도초5) 106 유사랑 (태봉초6) 107 강예은 (월광기독교고6) 113 장시영 (광주서초6) 117 박하진 (블로초6) 118 이단비 (라온초6) 130 이상원 (블로초5)</p> <p>*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p>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년을 돌아보다

23일 이슈 포럼...성과·과제 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시는 문화예술 교류를 토대로 문화적 창의성, 아시아 국가 협력을 증진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제 시됐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정치와 경제, 문화의 수도권 집중화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극복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올해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추진된 지만 20년이 된다.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과제 등을 돌아볼 수 있는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회장 류재한, 이하 지원포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시의회(5층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20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이슈 포럼을 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남대 문화전대학원, 인문대학, 호남학연구원이 함께 마련했다.

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포럼은 김봉국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의 ‘광주의 로컬리티와 문화도시 담론’ 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정성구 UCL도시리얼타임연구소 대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강진경 전남대 문화전대학원장이 ‘광주 문화도시 30년,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김기곤 연구본부장(광주연구원)을 비롯해 김요성 문화체육관광부(광주시), 정명중 원장(전남대 호남학연구원), 라도삼 선임연구원(서울연구원), 안태홍 교수(전남과학대), 박호재 총국장(더팩트), 정두용 대표(사)청년문화허브 등이 참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